

SENIOR **조선**

MAY
2013
VOL.13

인생을 품격있게 경영하는 이들을 위한 섹션 매거진 senior.chosun.com

Come Inside

남자여, 앞치마를 둘러라
왜 그들은 AARP에 열광하는가



BULLETIN



Travel

전세기 타고 나트랑으로 Go Go!

올해 휴가는 어디로? 그저 그런 휴양지에 질렸다면 베트남의 나트랑을 추천한다. 안정적인 기후와 깨끗한 해변, 그리고 고급 리조트가 즐비한 이곳은 일찍부터 유럽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해안 휴양지. 마침 오는 5월 2일부터 한진관광에서는 나트랑 직항 전세기를 운항한다. 인천에서 5시간이면 현지에도 도착. 여느 봄비는 동남아 휴양지와 달리 단독 전세기로 여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한진관광 전세기를 이용하면, 동남아시아 최대 대형 물놀이 시설을 갖춘 빈펄리조트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한진관광은 새로운 곳으로의 허니문을 원하는 부부들을 위한 상품도 판매 중이니 참고할 것. 이창에 나트랑으로 리마인드 허니문을 떠나보는 것도 좋겠다.

문의 1566-1155(허니문 문의 02-726-5535)



Education

북경대학교 韓·中 최고경영자과정 모집

중국 기업인과 교류를 원하는 열혈 사업가들은 주목! 중국의 현황에 대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업계 담당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다. 오는 7월 5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북경대학교 韓·中 미래전략 경영자과정' 2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는 북경대 경영전문대학원인 HSBC 비즈니스 스쿨이 커리큘럼을 담당하고 고려대 기술지주 자회사 케이유네트웍스(주)와 조선에듀케이션이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이수자에게는 북경대 발급 수료증이 주어진다. 2기 프로그램에서는 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와 한·중 관계를 주제로 한 다양한 강의와 토론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중국의 현황과 전망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중국인들과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본 과정 참가대상은 중국으로의 진출이나 중국 기업인과 교류를 원하는 기업인 및 실무자 등이며 국내 모집 인원은 30여 명이다. 참가비는 350만원. 참가자 모집은 6월 12일까지. 문의 1599-3260



'Basin Theology/Ephedra Expansion'(2012) ©Sterling Ruby

Gallery

스털링 루비展

스털링 루비(1972~). 국내에선 조금 낯선 이름일 수 있다. 하지만 영미권에선 이미 스타의 반열에 오른 그는 누구보다 예술적 스펙트럼이 넓은 작가다. 스프레이로 구현한 환상적인 색상의 회화, 자신만의 새로운 도자공법을 활용한 설치미술, 다양한 직물원단을 이어 붙인 콜라주 등 줄곧 색다른 모습으로 대중과 만나왔다. 실험적인 재료와 기법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의 국내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총 11점의 작품이 한국을 찾았다. 이번에 소개된 작품들 가운데 도자연작은 특히 눈길을 끈다. 금이 가고 부서진 도자 조각들을 조형적으로 조합해 둥근 대야 안에 설치한 것. 이 부서진 조각들은 일종의 자기 고백이기도 하다. 그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혼란과 갈등을 모두 이 그릇 속에 집어넣고 싶었다. 그림으로써 치유, 구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얻고 싶었다. 나에게 도자 작업은 심리 치료와도 같다." 스텔링 루비의 실험적 작품들은 5월 10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210-9885

김환기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展

추상미술의 선구자 수화 김환기(1913~1974)가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환기미술관에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전을 기획했다. 한국적 서정주의를 바탕으로 독창적 예술 세계를 정립한 김환기는 한국은 물론 일본, 파리, 뉴욕에까지 그 이름을 알린 인물. 이번 특별전의 전시구성은 크게 동경·서울시대, 파리시대, 뉴욕시대로 나눠 초기작에서 말년의 대형 전면 점화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대표 작품을 선보인다. 이 외에 사진과 편지그림, 기사, 드로잉, 비평문 그리고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함께 이끌어온 여러 화가의 인터뷰 영상을 함께 전시해 김환기의 예술 세계를 조명한다. 한편, 환기미술관은 100주년 기념으로 오프라인 전시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전시도 함께 펼친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시기별 작품과 다양한 전문 정보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6월 9일까지. 문의 02-391-7701



매화와 향아리(1957)



독창적美가 깃든 구두

벨루티의 오랜 팬들은 자신들의 스타를 '영혼을 지닌 구두'라 칭한다. 견고한 팬심으로 빛나는 프랑스 수제화 브랜드 벨루티가 새로운 구두를 선보였다. 그 주인공은 '지안루카 태슬 로퍼'. 비스포크(맞춤구두)의 기술력이 깃든 이 기성화는 가족을 재단할 때 만들어지는 이음새를 구두 뒷부분에 숨기는 대신 오히려 구두 전면에 과감하게 드러내는 획기적인 재단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벨루티만의 차별화된 독창성과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문의 02-3446-1895

Fash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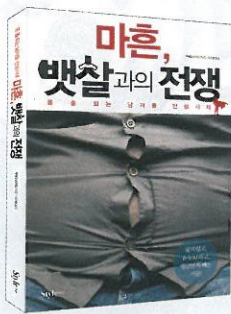
Utensil

사랑받는 남편이고 싶다면?

5월은 가정의 달. 사랑받는 남편이고 싶다면 주방과 친해질 것. 프랑스 명품 주방 브랜드 스타우브에서는 5월 3일부터 열흘간 '가족 사랑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 기간 중 스타우브 매장에 방문하면 '볼맛이 나들이에 어울리는 추천 레시피' 인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그중 인기 요리로 선정된 메뉴에 투표한 이들을 주점, 푸짐한 선물을 증정한다. 다양한 레시피도 얻고, 스타우브 제품도 경험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문의 02-2192-9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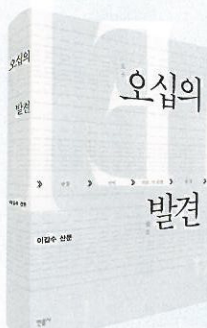
〈마흔, 뱃살과의 전쟁〉

중년의 남자에게 뱃살이란 출퇴근만큼이나 익숙한 것. 하지만 언제까지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오랜 시간 다이어트에 몰두한 저자는 운동을 하지 않고도 뱃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바른 자세와 배를 수축하는 것만으로 효과 만점인 '드로인(draw in) 뱃살운동'이 그것.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뱃살 빼기 프로젝트인 '드로인 뱃살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자세히 가르쳐준다. 우에모리 미오 저, 조선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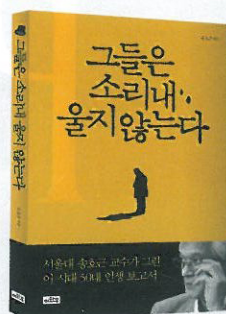
〈오십의 발견〉

공자는 천이 되어서야 하늘의 명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갖은 인생사를 견뎌낸 후 비로소 진지하게 자신을 대면하게 되는 나이 천. 이 책은 이제 막 천이 된 저자가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고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성찰하며 쓴 에세이다. 시골 마을에서 소를 먹고 나무를 타며 보낸 어린 시절부터 여가져기 이른 몸과 장차 다가올 죽음을 걱정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남자의 진솔한 고백을 만날 수 있다. 이갑수 저, 민음사



〈그들은 소리 내 울지 않는다〉

한국의 대표 사회학자가 만들어낸 50대 인생 보고서. 경험, 가치관, 가족 책임, 행동 양식, 사고방식 등 다른 세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베이비부머 세대만의 독특한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했다. 1955~1963년에 태어난 전국 약 715만 명의 베이비부머들 중 10여 명을 만났다. 저자는 이들 베이비부머들의 사연 속에 잠겨진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솔직하게 풀어낸다. 또래라면 큰 위안을 얻을 것이다. 송호근 저, 이와우.



Books